

IFLA 1994년 총회참가보고

박 계 홍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1994년도 IFLA총회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Havana, Cuba)시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일정은 별첨 I 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대표7인 외에 기관대표로 국립중앙도서관(2인), 국회도서관(1인), 정부(1인), 개인(2인) 등 1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쿠바는 비수교국이라 서울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어 한국도서관협회 대표단은 멕시코시티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바나 공항에서 입국 수속시 “꼬에아노”(한국인)이라는 말이 나오자 입국심사대에서 약간의 동요가 있었으나 IFLA 참가단이라는 말을 듣자 반장 쫓겨는 사람의 지시로 즉시 입국과 통관절차를 끝내 주었습니다.(이는 아마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없거나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일행은 멕시코시티에서 한국대사관의 심국웅 공사가 준 쿠바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감안하여 가급적 같은 호텔의 같은 층에 투숙하도록 하였으며 몇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켜 현지에서는 큰 불편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총회는 64개국에서 800여명, 쿠바에서 450명 등 1,250여명이 참가한 큰 회의가 되었으며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2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개회식에서의 Robert Wedgewarth회장의 개회사는 많은것을 시사하였으며 특히 Silverplatter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IFLANET의 개시는 앞으로의 IFLA회원간의 제반통신과 국제간 데이터 교환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곧 시작될 IFLA DOC은 IFLA에 관한 자료, 뉴스레터, 회의자료 등의 국제유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IFLA사상 처음으로 언급된 국제간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정보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권운영의 새로운 국면이 필요하다는 말은 앞으로 지적소유권의 국제적인 조율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상적이었던 것은 축사에서나 기조연설에서나 과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정치적인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쿠바 독립전쟁의 영웅 호세마르티에 관한 언급은 여러 번 있었으나 현재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발표논문들은 지역성의 특징에 따라 중·남미의 도서관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풍요롭지 못한 환경에서의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쿠바의 도서관은 그 현황이 우리들의 상상이하였으며 국립도서관(국립도서관, 국립과학기술자료

관 등)들도 해마다 장서비가 감소되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기본사업보고는 UAP(세계출판물이용사업) UBC(세계문헌통정사업) 및 UNIMARC(국제기계 기록목록)별로 이루어졌으며 특기할 것은 CITED(Copyright in Transmitted Electronic Documents)기능을 이용한 Demo ADONIS(과학기술 D/B)와 NARCISSE(예술 D/B)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많은 인쇄매체의 지적소유권 소유자들이 전자미디어에 안심하고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과 UNIMARC위원회의 상설기구화와 UNIMARC에 의한 UNIBASE의 구축인데 UNIBASE는 UNESCO에서 개발한 CDS/ISIS Softwar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DS/ISIS는 UNESCO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중·소 도서관에서는 고려하여 불만한 것입니다.

IFLA와 한국 1976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IFLA가 동서냉전의 여파로 동구권 국가들의 반대로 “총회”가 못되고 “학술대회”에 그치게 되어 여러가지 아쉬움을 남겨놓았습니다. 문화부 이어령 장관님 재직시부터 이야기가 되어오던 IFLA총회 한국유치는 그간 몇차례의 의사표명과 작년에 표명한 공식의사의 전달 결과 금년 총회중에 이루어진 IFLA회장 R. Wedgeward씨와의 면담에서 1999년을 일차로 지목하고 2003년을 이차로 지목하여 초청하기로 잠정합의를 보았습니다.

1994년은 이미 태국이 초청을 하고있었습니다만 한국이 경합하는 것이 좋을듯한 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개최가 결정되려면 IFLA본부 임원의 현장답사가 1996년 북경대회 전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국제협력관계

◎한-일관계

그간 소원하였던 한일도서관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한일 양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중 일본과는 공공도서관의 교류가 의논되어 양국 도서관협회에서 실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중관계

현재까지 한중간에는 약간명의 인적교류가 있습니다만 북경의 국립도서관 孫蓓欣(Sun Beixin) 부관장(IFLA 부회장)과 '96 IFLA 조직위사무총장 杜克씨의 면담에서 1996년 북경 IFLA 총회 이전에 폭넓은 교류를 가지고 IFLA 북경대회 때에는 한국의 적극참여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한-러관계

러시아 국립도서관장 이골 휘리뽀프씨와의 회담에는 부관장 타티아나 엘쇼바, 국회예술도서관장 아다콜가노바, 국립과학기술도서관장 안드레이 펠스코프등도 동석하였으며 이 회담에서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양국 도서관 관계(몇개의 도서관 환관계, 2-3인의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행사적인 학술회나 인사교류를 지향하여 각급도서관의 관장급과 수서담당자, 대학교수로 구성된 실무급, 기술적 회의와 출판물의 조직적 교환을 증진하자는 의견과 한국측이 응한다면 러시아 측에서 먼저 한국대표단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으로서는 회의 내용과 프로그램은 좋으나 서울 개최시의 비용 및 교환자료의 선정 및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 없이는 이를 수락할 수 없어 시간적 여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문화체육부 당국과 각급재단, 지원단체와의 협의 후 그 규모와 범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IFLA 총회에 참석하는것도 도움이 되겠

습니다만 한국에서도 현장경험, 현장연구,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를 IFLA라는 광장에서 발표할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FLA총회에서 contributed papers를 주선하실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만 총회에서는 이러한 논문만이 아니라 많은 분과위원회 별로 발표·토론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회원님 여러분께서 분야별로 발표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도서관협회에 연락 주시면 협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여행에 큰 도움과 편의를 주신 관계 당국의 관계자 여러분과 멕시코주재 한국대사관의 심국용공사 및 위운영 공보관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첨 I〉 회의 일정

8월 20일(토)

등록 : 회원

회의 : 이사회

전문위원회

부별조정위원회

분과별집행위원회

8월 21일(일)

등록 : 회원

기본사업보고

유네스코사업소개

전시회개막

회의 : 부별조정위원회

분과별집행위원회

8월 22일(월)

오전 분과위원회별 회의

기고자 발표회

오후 문헌통계사업 공청회

제3세계대회

16:00 총회개회식

19:00 쿠바정부초청리셉션

8월 23일(화)

오전 각분과위원회 학술발표회의

이사회

오후 포스타 세션

초청강연

21:00 문화행사(국립극장)

8월 24일(수)

오전 각분과위원회 학술발표회의

오후 각분과위원회 학술발표회의

19:00 쿠바도서관협회 초청연(국립도서관)

8월 25일(목)

오전 관종별 도서관시찰 분과별/사업별 강습회

오후 관종별 도서관시찰(17개)

19:00 아바나 시장 초청연회(구의회 회관)

8월 26일(금)

회의 : IFLA조직위원회

오전 분과위원회, 집행위원회

오후 전문위원회 평가회의 폐회식

8월 27일(토)

전일 시찰여행(도서관, 산업체, 고적지 등)

〈별첨 II〉 한국참가자명단

• 한국도서관협회대표단

박계홍 한국도서관협회 회장(단장)

김명기 한국방송통신대학도서관 관장

김윤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실 실장

김호영 경북도립구미도서관 관장

배창호 대구시립서부도서관 관장

- 조상천 세기문화사도서관 과장
- 최종석 세기문화사도서관 관장
- 국립중앙도서관 김광인 관장
- 국립중앙도서관 이숙현 사서사무관
- 국회도서관 박종일 관장

- 문화체육부 도서관정책과 이상준 과장
- 기타(개인)
-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박창엽 열람과장
- MBC 자료실 신경식 차장

「우리가족독후감상문」 공모 입상자 시상

우리협회가 공모한 「우리가족독후감상문」 시상식이 12월 23일(금) 국립중앙도서관 별관 대강의실에서 있었다. 독서세물결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우리독후감상문」 모집은 기존의 개별 참가형식의 독후감상문 모집 형태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의 형태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으로 부터 독서운동이 싹트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전국에서 응모한 314가족 중 〈사씨남정기〉를 읽고 가족간의 화목을 다진 이정운(서울 남사국민학교 5학년)가족의 2가족이 “으뜸독서가족상”을 수상했으며, 우수독서가족상 10가족, 모범독서가족상 20가족, 장려독서가족상 25가족 등 총 58가족들에게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수여되었다.

* 으뜸 독서가족상(3가족)

이정운(서울 남사국민학교 5학년) / 채순애(경기 안양시) / 최수근(경기 수원구운중학교 2학년)

* 우수 독서가족상(10가족)

구본준(인하대학교 1학년) / 김동진(충남 금산고등학교 3학년) / 김명용(서울 명일동) / 김민우(경북 상주중앙국민학교 2학년)
김복태(충남 공주시) / 김정남(전남 순천시) / 신재성(경남 창원군) / 이근배(서울 신림동) / 이영훈(부산 안락국민학교 2학년)
진명수(전북 전주시)

* 모범 독서가족상(20가족)

강형순(경남 창원시) / 김경희(서울 미동국민학교 3학년) / 김석중(전남 장흥군) / 김에진(강원 철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운희(충북 매곡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 김일재(경기 이천군) / 박춘서(경북 안동시) / 육명숙(서울 가락동)
윤선근(전북 전주시) / 이명옥(서울 신월동) / 이미지(서울 신용산국민학교 6학년) / 이호구(경기 안양시) / 전세미(서울 종암동)
정다원(서울 대명국민학교 6학년) / 조수진(서울 증산동) / 조옥순(충남 공주시) / 지혜영(서울 고척동) / 최양규(서울 신길동)
최진기(경남 충무시) / 최한미(서울 숙명여자중학교 1학년)

* 장려 독서가족상(25가족)

김미자(경기 여주군) / 김병구(광주 백운동) / 김선(강원 강릉송정국민학교 2학년) / 김윤정(서울 길음동) / 김은애(경북 포항시)
김점남(전남 목포시) / 김주희(서울 대치동) / 김지현(서울 아현국민학교 2학년) / 나명훈(광주 운암동) / 박금숙(인천 산곡동)
박미림(인천 가좌동) / 박민우(경기 안양서국민학교 3학년) / 박성애(충남 공주시) / 박정란(인천 갈산동) / 변영희(제주 제주시)
서희(충북 사직국민학교 6학년) / 윤영철(서울 신림동) / 윤춘기(경북 영풍군) / 이경란(경북 고령군) / 이승매(대전 둔산동)
이영훈(서울 신정동) / 이혁희(경기 성남시) / 임순재(충남 서천군) / 전중두(부산 대연동) / 홍성덕(인천 청천동)